

'박상욱 & 이호찬 듀오 리사이틀'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6일 세계적 피아니스트·첼리스트 환상적인 무대 만날 수 있어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첼리스트 이호찬의 듀오 리사이틀이 전주에서 열린다.

'박상욱 & 이호찬 듀오 리사이틀'은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전주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정)에서 막을 올린다.

'박상욱 & 이호찬 듀오 리사이틀'은 문화공간(이룸)과 사단법인더문화가 공동 주최, 주관한 초청 공연으로 지난 7월 성황리에 열렸던 '2022 월간더문화' 7월 공연의 주인공인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신박', 그중의 한 명인 '박상욱'과 각종 국내외의 콩쿠르를 휩쓴 첼리스트 '이호찬'의 듀오 리사이틀 공연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만남을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직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피아니스트 박상욱은 위에서 언급했듯, 지난 2022년 7월에도 문화공간 이룸에서 '2022 월간더문화'의 공연에 '신박듀오'로서 주인공으로 출연한 바 있다.

박상욱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21세기 영아티스트 피아노 국제콩쿠르 피아노에서 우승, 이탈리아의 저명한 실내악 콩쿠르인 Premio Gui 콩쿠르 최연소 참가 및 특별상 수상 등 10대 시절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과 입상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2013년부터 박상욱이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결성한 피아노듀오 신박은 유럽을 중심으로 연간 40-50회의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유럽 피아노 듀오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젊은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이 베이스인 박상욱은 현재 국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대관령평창국제음악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경기실내악축제 등에 출연하였고 KBS교향악단, 성남 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업하였으며, MBC TV예술무대, SBS 영재발굴단에도 출연했



'박상욱 & 이호찬 듀오 리사이틀' 포스터

다. 첼리스트 이호찬은 예원, 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독일 함부르크 음대 Master(석사)과정 졸업 후 뮌헨 음대에서 Konzertexamen(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전문연주자과정(Post graduate)을 졸업했다.

중앙음악콩쿠르를 비롯해 오사카국제콩쿠르 현악부 전체 1위 및 특별상 등 국내외의 콩쿨에서 입상을 한 이호찬은 한국 무대에서 금호영재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데뷔한 이후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 금호영재 10주년, 20주년 기념 콘서트, 금호아트홀 찾아가는 음악회 시리즈, 예술의 전당 아티스트 리운지 콘서트,

예술의 전당 IBK홀 개관연주, 전주 어울림 실내악 페스티벌, 영아티스트 포럼 앤 페스티벌 '현악본색', 통영국제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솔리스트 또는 실내악 연주자로 초청받아 연주했다.

또한 예술의 전당의 기획공연인 '11시 콘서트'와 '토요일콘서트' 시리즈에서 코리아안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 소사이어티 '별간머리 신부 시리즈', Musicalps Seongnam Festival, 독일 Philharmonisches Orchester Lubeck 등에서도 협연자로 초청되었다. 현재 스테이지원 아티스트, 아더(Ader) 첼로 콰르텟 리더, 앙상블 블랭크의 the Artist Committee, 앙상블 자비에 활동 및 책가옥 음악감독, 유튜브 채널 '오늘도 서초동' 등 연주와 기획자로 활동중이며 신박듀오의 박상욱 피아니스트와 함께한 첫 데뷔 앨범이 지난 10월 발매되었다.

오는 6일 화요일 문화공간 이룸에서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첼리스트 이호찬은, 클라라 슈만,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슈베르트 등의 3개의 로망스 및 소나타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온 그들의 예술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고 한다.

이윤정 이사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이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자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보다 용이하게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첼리스트 이호찬의 말이 필요 없을 무대를,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오롯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비 중이다. 오는 6일, 넘치는 예술의 바다속에서 유포하는 최고 수준의 무대를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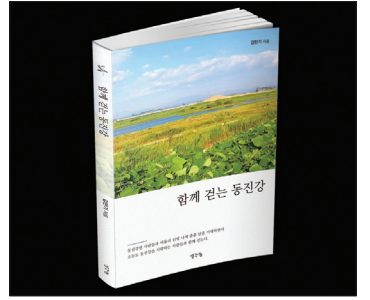
'함께 걷는 동진강' 출판기념회 진행

김만기 전북리더십연수원 부이사장 자서전 발간... 10일 정읍 칠보초서

칠보농협 이사를 지낸 김만기 전북리더십연수원 부이사장의 자서전 '함께 걷는 동진강' 출판기념회가 오는 10일 정읍 칠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8일 발행하는 이 책은 김 부이사장의 농업활동 이야기, 공부보다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던 성장기, 주경야독으로 만학도가 된 과정, 능력과 성실만으로 최고 농장주로 성장한 이야기까지 그의 목표와 신념을 향해 달려온 삶의 기록이 담겨있다.

김만기 부이사장은 "응답, 산외, 산내, 칠보를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에게 배운 도전정신으로 사사로운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향해 달려왔다"며 "농농사와 소를 키우며 생활하면서 성실함과 도전정신, 그



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경야독의 열정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만경강 환경보전 생태사진전' 개최

완주군청 로비서 이호연 작가 작품 전시

만경강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천연기념물인 느시,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삿갓나리, 쥐방울 톨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야생화까지 천혜의 생태계를 간직한 곳이 바로 만경강이다.

완주군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경강 생태를 60여 점의 사진 작품에 담아낸 사진전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완주군 용진읍 출신의 이호연 사진작가는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완주군청 로비에서 지난 1일부터 '만경강 환경보전 생태사진전'을 열고 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인 이 작가는 그동안 다수의 공모전에 참여해 입상한 실력자로, 용진에서 열린 전시회를 관람한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5일까지 완주군청에서 추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청 1층에 펼쳐진 사진전에는 아름다운 무늬의 꼬리명주나비를 클로즈업한 사진과 요정이 춤추는 모습과 같은 노랑명태버섯 사진 등 아름답고 신비로운 만경강 생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사진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로 세 번째 사진전을 개최한 이호연 작가는 2017년 완주군의 생태아카데미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뜻이 있는 회원들을 모아 '만경강 사랑지킴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최초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의 매개단체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공공 문화재단으로서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며, 기초단위 문화재단으로서의 최초다.

지난 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2022 문화예술 후원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 문화예술후원 인증 제도의 매개단체 인증을 받은 전주문화재단과 예술후원 우수기관 7곳의 인증식이 진행됐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자 마련된 인증제도다. 이에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선정된 전주문화재단은 2025년까지 '후원매개 사업비 지원'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의 지속적인 후원매개 활동이 지역사회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예술후원에 대한 관심이 기초문화재단 최초의 매개단체 인증이라는 성과로 되돌아왔다"며, "매개단체로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예술후원이 꽃피운 전주의 문화예술이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온라인매체 만족도 조사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온라인매체(홈페이지 및 SNS)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온라인매체 만족도 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주간 구글폼을 통해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설문 내용은 △온라인 매체 이용현황 △홈페이지 만족도 △SNS 만족도 △기타 개선의견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고객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수용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만족도 조사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폼 접속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추천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환희와 기쁨이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환희와 기쁨이 함께하는 '2022년 송년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어려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격려 차원에서 김제시민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2023년에는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염원을 담은 콘서트로 진행된다. 방승인 정연우씨의 사회로 대한민국 대표 팝

페라 공연팀인 캔텀싱어 출연진의 'My way', 'D sole mio'의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MBC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한 가수 신명근의 '사랑', '이젠 나만 믿어요' 무대와 국악 신동이자 트로트 신동인 김태연의 '오세요', '간테요 글쎄', '범내려온다'를 선보이고, 원조 한류 스타인 김연자의 '십분내로', '블링블링', '아모르파티' 등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김제=곽동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